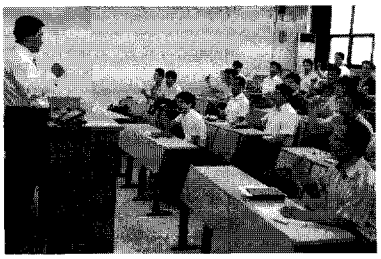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주)

백두사료 2012년 전략 워크샵 실시

두산생물자원(주)(대표 박근효) 백두사료 영업본부는 7월12일 '2012년 전략수립'을 위해 당사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중앙대학교에서 전략워크샵을 실시하였다.

백두사료는 중앙대학교와 연구협력협약 체결 후 고품질의 신제품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위한 최고의 전략수립을 위해 영업본부 DFC들은 축종별 서비스전략과 지점별 Action Item을 도출하여 시장현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6월 목표달성과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영업본부 5명의 DFC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었습니다.

백두사료 영업본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최상의 전략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우성사료

우성사료 전체영업회의 실시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지난 7월 15~16일 양일간 충남 덕산 스파캐슬에서 우성 영업조직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체영업회의"를 실시하였다. 올 상반기는 FMD로 인해 축산시장 전체가 힘든 시기였으며 그 아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비장한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했다.

우성사료는 지난 상반기 FMD상황 속에서도 위기상황 조기종식을 위해 현장 최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한편 축산업 재건을 위해 축산인 희망나누기 캠페인 "다시 뛰는 축산인" 활동을 전개해 실의에 빠진 축산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한편 지금도 현장에서 축산업의 재건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우성사료 표광수 상무는 "무더위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하절기 더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표광수 상무

또한 "지난 7월 1일 부터 시행된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생산성 싸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우성은 유럽의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와 오랜 전통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년여 전부터 무항생제 제품과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시험사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한 만큼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해 이젠 축종별 전문가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우성사료 영업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위축된 한국축산업의 새로운 힘찬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축산시장의 새로운 활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모범적인 윤리경영 인정받아

2011년 7월 13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이보균)는 포춘코리아가 주관하는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모범적인 윤리경영 사례를 발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종 시상 기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제출한 공적서를 토대로 투명경영 · 가치경영 · 혁신경영 · 인재경영 · 미래경영 등 5개 분야를 엄밀하게 심사해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는 비전 하에 △윤리적인 기업 운영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봉사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지원 △ 다양한 인재양성 등 좋은 시민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왔다.

이보균 사장은 "1967년 창립이래 꾸준히 함께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이번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은 지난 반세기의 노력을 인정 받는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1_우수상 수상을 받고 있는 이보균 대표
02_수상 소감 발표중
03_참석한 임직원들과 함께

(주)CJ제일제당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 취임

-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목표 달성'
- 현장중심의 리더로 '고객의 목소리' 귀기울일 것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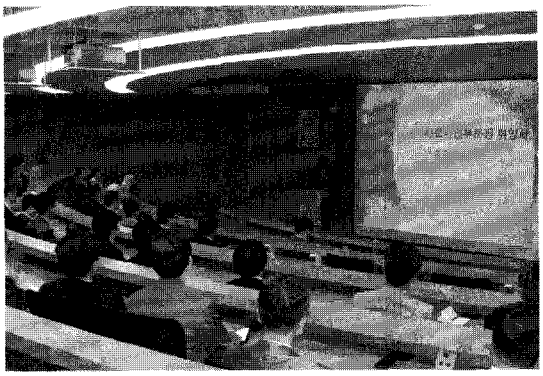
행운의 숫자 '7'이 두번이나 겹쳐있는 길일인 지난 7월7일, 신임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신임 유종하 부문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사료조직원 외에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의 경영진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을 대표하는 법인장과 현지 임원들이 멀티화상시스템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CJ사료사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유종하 부문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사료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CJ사료사업을 맡게 되어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2020년 아시아TOP5 글로벌 사료/축산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취임소감을 밝혔다.

유종하 부문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상호응집력을 높이고 근로의욕, 협동심, 업무만족을 높이며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유종하 부문장



은 취임식 이후 각 부문 별 업무보고만 받고 즉시 현장을 뛰어들어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종하 부문장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만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향후 CJ사료사업을 세계수준의 제조경쟁력 확보와 함께 R&D기반의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축산물, 항생제 첨가금지 이슈에 발맞춰 친환경사업분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연구인력 및 시설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객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ONLYONE적인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은 30여년간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한 정통 CJ맨이다.

CJ제일제당 내 모든 사업장을 섭렵했으며 생산, 품질, 영업 등 다양한 직무의 리더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견인해왔다. 한때 CJ제일제당 사료사업의 최초 발상지인 부산사업장에서 수장을 역임하는 등 사료사업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혁신적인 업무스타일로 변화추진의 리더로 정평이 나있고 사업을 보는 통찰력과 비전제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다.